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 순 규⁺

(전북대학교)

최 혜 정⁺⁺

(전북대학교)

박 신 애⁺⁺⁺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과 가족, 학교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청소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지역 중, 고등학교 청소년 1,088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1,063명의 자료를 SPSS 19.0과 Amo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개인과 가족, 학교차원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개인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학교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학업 성취

+ 주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004791004@hanmail.net

+++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발달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며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law.go.kr>).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활동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면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청소년활동들이 개발·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효과성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의 발달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 연구들은 단순한 실태파악과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단선적인 인과관계 구조로 인해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진은설과 임영식(2011) 연구에서 성과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활동 관련 변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나, 주관적 평가인 만족도만을 결과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행위주체로부터의 설득을 얻어내는 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청소년활동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야외활동, 자원봉사활동, 교과수업 외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및 사회성 발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성장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usseri and Rose-Krasnor, 2010). 또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한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종단적·체계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alsano et al., 2009; Sandford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다차원적인 차원과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개인차원, 가족차원, 학교차원으로 구분하고, 청소년활동과 이들 차원의 효과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고려한 매개모형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살펴본 이유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의 중심과제인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요소이고(장승옥·한선혁, 2004),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 또한 혼란과 변화를 겪으며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성은, 2009). 또한, 이미 많은 청소년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가족관계, 학교 적응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양이·박미란, 2007). 이는 청소년활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현월심, 2001; 김윤나·박옥식, 2009; 문성호·문호영, 2009), 실제로 청소년 활동을 다룬 몇몇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다(장승옥·한선혁, 2004; 이성은, 2009; 박재숙, 2010; 김선숙·안재진, 2012; 김지혜, 2012).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 연구 고찰

청소년활동 연구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실태연구, 만족도 연구, 효과성 연구로 구분되는데, 실태연구(송광성 외, 1994; 이종원 외, 2007; 문성호·문호영, 2009; 정유경, 2009; 김순규·최혜정, 2011)는 청소년활동 참여현황,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도움이 되는 정도, 욕구 등 단순한 활동실태에 대한 내용부터 이후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문성호와 문호영(2009)의 연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 뿐 아니라 프로그램 영역별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 만족도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활동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다(정철상, 2002; 윤은중, 2004; 김창현, 2008; 문성호·문호영, 2010; 진은설·임영식, 2011). 구체적으로 성별, 학교급 등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와의 관계, 참여동기 및 활동집단 특성과 만족도의 관계 등을 살펴보거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요인 등 청소년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장승옥·한선혁, 2004; 유진이, 2007; 김성자 외, 2008; 김윤나·박옥식, 2009; 설민희, 2009; 이성은, 2009; 박재숙, 2010; 박정배·송병국, 2011; 김선숙·안재진, 2012; 김지혜, 2012; Larson et al., 2006; Balsano et al., 2009; Busseri and Rose-Krasnor, 2010;

Shields et al., 2010)에서는 수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효과성 연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평가가 아닌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주관적 안녕감, 진로결정, 인식된 자기변화,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 등을 고려한 효과성 평가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박정배·송병국, 2011; 진은설·임영식, 2011; 김지혜, 2012; Shields et al., 2010). 결국 청소년 활동의 참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효과성 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대상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청소년이 아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윤나, 2010),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살펴본 연구(이기봉 외, 2011) 등이 있으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한 연구(진은설·임영식, 2009) 등이 있다.

2) 청소년활동이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 뿐 아니라 대인관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청소년 발달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arson et al., 2006).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고려하여 개인측면에서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등을 살펴보고, 가족측면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측면에서는 학업성취,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만족과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효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다(장승옥·한선혁, 2004; 유진이, 2007; 김윤나·박옥식, 2009; 이성은, 2009; 박재숙, 2010; 김지혜, 2012). 청소년활동인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활동 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승옥·한선혁, 2004; 유진이, 2007; 박재숙, 2010; 김지혜, 2012),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중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이성은, 2009). 특히, 청소년활동은 자아존중감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박재숙, 2010; 김지혜, 2012; Busseri and Rose-Krasnor, 2010).

또한 청소년활동이 개인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느낌이나 행복감으로 정의된다(김아름, 2011; Oberle

and Schonert-reichl, 2011).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원·홍미애, 2004; Wallander et al., 2001).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박정배·송병국, 2011; 김지혜, 2012). 이밖에 청소년활동이 개인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삶의 만족, 생활만족, 스트레스 등이 지적되는데(김윤나·박옥식, 2009; 문성호·문호영, 2009) 삶의 만족이나 생활만족은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변인은 중단연구(김윤나·박옥식, 2009)에서 청소년활동과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가족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권일남과 김태균(2009)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역량개발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8개의 역량 중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가족관계, 부모와의 소통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기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스트레스가 청소년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부모관계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만족도 등이 결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아미·신택수, 2012). 이처럼 청소년활동 선행연구에서 청소년활동과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대인관계, 성인과의 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윤은중, 2004; 윤철, 2011; Busseri and Rose-Krasnor, 2010).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지도자 및 또래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며 구조화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인과의 관계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과 가족관계, 특히 성인인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학교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이나 행동범위를 확대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Wentzel and Watkins, 2002, 이교봉, 2009에서 재인용). 실제로 동아리활동과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동아리활동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유진이, 2007),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이 중·고등학생 모두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나·박옥식, 2009).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활동 경험을 탐색한 진은설과 임영식(2009)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이 새로운 경험과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권일남과 김태균(2009), 조아미와 신택수(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사회성을 증진시킴으로서 또래 간의 갈등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정리하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개인측면에서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가족측면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그리고 학교측면에서 학업성취와 또래관계, 학교생활만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하며, 특히, 개인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매개효과로 살펴보고 검토하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개념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데, 이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정익중, 2007). 특히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다시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개인측면에 미치는 영향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지적되며(황혜원, 2011; Lucas et al., 1996), 높은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 회복력, 적응유연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섭, 1998; Aderson, 1999; Schoon and Bynner,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Cheng and Furnham, 2003)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 정도와 개인의 성공 및 실패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명순, 2007; Natvig et al., 2003).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자살, 약물남용, 비행 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희옥, 1998; 최은영·최인령, 2002; Nagar et al., 2008).

두 번째, 자아존중감이 가족측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관심과 수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이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형성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익중, 2007; 이성은, 2009). 또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반응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에 따라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박영애 외, 2003)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측면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인관계 측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학교측면에 미치는 영향이다.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윤은중·김희수, 2006; Hawkins et al., 1992).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동기부여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학업성적, 학습태도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와 학교생활만족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나정, 2008).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인측면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측면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면에서는 학업과 또래관계 만족 및 학교생활 만족에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전라북도청소년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확률표집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1,0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총 1,06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교와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학교교사와 기관의 선생님들께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를 부탁하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개인측면, 가족측면, 학교측면에서의 효과

청소년활동의 효과인 종속변수는 크게 개인측면, 가족측면, 학교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측면에서의 효과는 Campbell(1976)의 “주관적 안녕 지표”를 이명순(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안녕감 5문항, 부정적 안녕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들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상태를 형용사 쌍들(예, 행복한-불행한) 중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으로 배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848$ 로 나타났다.

가족측면에서의 효과는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정도,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는 정도, 부모님과 서로 이해하는 정도 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861$ 로 나타났다.

학교측면에서의 효과는 학업성적과 학교생활만족, 또래관계 만족으로 구성되어 살펴보았다. 학업성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1점, 매우 잘함(상위 20%이내)을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만족과 또래관계 만족도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723$ 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참여만족도와 도움정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활동의 참여 만족은 '그 동안 참여한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의 도움정도는 '그 동안 경험한 청소년활동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는 청소년활동의 만족도와도 연결되는 변수로 '평소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640$ 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변수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문항(5문항)과 부정적 문항(5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858$ 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개인측면, 가족측면, 학교측면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은 참여만족정도, 도움정도, 관심정도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측면은 개인이 인지하는 부정적 안녕감과 긍정적 안녕감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측면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정도와 신뢰, 애정정도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측면은 학업성적, 또래만족, 학교생활만족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및 교급(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가족 형태를 고려하였다.

4) 분석방법 및 자료점검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19.0과 Amos 18.0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기 전 측정변수들에 대한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¹⁾를 통해

1)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를 이루며, 왜도는 절대 값이 3.0 이상일 경우, 첨도는 절대 값이 10.0 이상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보았으며, 다중공선성²⁾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파악하였다. 먼저, 자료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001~.659, 첨도의 절대값이 .036~5.133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중공선성은 VIF가 모두 .615~1.512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 51.7%, 여 48.3%였으며, 교급은 중학교가 52.2%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고 28.4%, 특성화고 17.7%, 특목고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의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39.2%, 좋은 편이다가 28.3%, 매우 좋다가 17.7%, 나쁜 편이다가 12.5%, 매우 나쁘다가 2.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6.5%로 가장 많았고, 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 52.7%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는 중 51.8%, 중상 20.9%, 중하 19.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부모+자녀)이 69%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자녀, 확대가족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조손가족 2.8%, 기타가 2.2%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도	백분율(%)	계	
성별	남	550	51.7	1,063(100%)	
	여	513	48.3		
교급	중학교	555	52.2	1,063(100%)	
	인문계고	302	28.4		
	특성화고(전문계등)	188	17.7		
	특목고	18	1.7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24	2.3	1,063(100%)	
	나쁜 편이다	133	12.5		
	보통이다	417	39.2		
	좋은 편이다	301	28.3		
	매우 좋다	188	17.7		
부모학력	부	중학교 졸업 이하	103	9.7	1,063(100%)
		고등학교 졸업	494	46.5	
		전문대학 졸업	54	5.1	

2)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면 강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졸업	311	29.3	1,063(100%)
		대학원 이상(석사 이상)	101	9.5	
	모	중학교 졸업이하	99	9.3	
		고등학교졸업	560	52.7	
		전문대학 졸업	48	4.5	
		대학졸업	291	27.4	
		대학원 이상(석사 이상)	65	6.1	
경제적 상태	상	51	4.8	1,063(100%)	
	중상	222	20.9		
	중	551	51.8		
	중하	211	19.8		
	하	28	2.6		
가족형태	핵가족(부모+자녀)	734	69.0	1,063(100%)	
	한부모+자녀	138	13.0		
	확대가족 (조부모+부모+자녀)	138	13.0		
	조손가족(조부모+자녀)	30	2.8		
	기타	23	2.2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독립변수인 청소년활동은 참여만족, 도움정도, 관심정도로 구분되며, 각각 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청소년활동의 참여만족정도는 평균이 3.22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청소년활동의 참여로 얻은 도움 정도의 평균은 3.35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평소 개인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의 평균은 3.02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1(긍정적) 5문항, 자아존중감2(부정적)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평균은 2.43점, 2.32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정도는 개인측면에서는 주관적안녕감1(긍정적 안녕감) 5문항, 주관적안녕감2(부정적안녕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안녕감은 3.17점이며, 부정적 안녕감은 3.28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측면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총 3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와 대화 나누는 정도는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애정정도는 3.75점, 부모와 나와의 이해정도는 3.50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면은 학업성적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래만족과 학교생활만족 역시 각각 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업성적의 평균은 3.0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3.33점, 그리고 또래관계만족도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변수정의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	연속변수	1	3.22(0.95)
	도움정도		1	3.35(0.89)
	관심정도		1	3.02(0.9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연속변수	5	2.43(0.78)
	자아존중감2		5	2.32(0.85)
개인측면	주관적안녕감1	연속변수	5	3.17(0.84)
	주관적안녕감2		5	3.28(1.06)
가족측면	부모관계1	연속변수	1	3.46(1.06)
	부모관계2		1	3.75(1.04)
	부모관계3		1	3.50(1.07)
학교측면	학업성적	연속변수	1	3.05(1.22)
	학교생활만족		1	3.33(0.97)
	또래관계만족		1	3.73(0.96)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자아존중감,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인 개인측면, 가족측면, 학교측면 관련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CFI=.969, TLI=.959, RMSEA=.046으로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³⁾이 p(<.001 이상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S.E	C.R
청소년활동	→ 참여만족	1.000(.534)		
	→ 도움정도	1.443(.818)	0.126	11.484***
	→ 관심정도	0.993(.538)	0.082	12.082***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1(긍정)	1.000(.684)		
	→ 자아존중감 2(부정)	0.909(.572)	0.061	14.928***
개인측면	→ 주관적안녕감1	1.000(.729)		
	→ 주관적안녕감2	1.386(.804)	0.074	18.658***
가족측면	→ 부모관계1	1.000(.766)		
	→ 부모관계2	1.120(.875)	0.041	27.587***
	→ 부모관계3	1.090(.833)	0.040	26.935***

3) 〈표 3〉의 Estimate에 비표준화추정치(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하였다.

학교측면	→	학업성적	1.000(.172)		
	→	학교생활만족	3.489(.758)	0.711	4.909***
	→	또래관계만족	3.385(.744)	0.690	4.907***

*** $p < .001$, $\chi^2 = 186.184$, $df = 58$, $CFI = .969$, $TLI = .959$, $RMSEA = .046$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적절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 측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연구문제 1)과 청소년 활동이 개인, 가족, 학교 측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연구문제 2)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경험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 측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 = .894$, $TLI = .858$, $RMSEA = .092$ 였으며, 청소년활동은 개인측면, 가족측면과 학교측면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우선 개인측면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참여가 0.458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측면은 0.630으로 역시 정(+)적 영향을 미친다($p < .001$). 마지막으로 학교측면의 효과성은 0.190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청소년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개인과 가족,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그림 1>과 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FI = .969$, $TLI = .959$, $RMSEA = .046$ 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	p-value	CFI	TLI	RMSEA
측정모형	186.19(58)	.001	.969	.959	.046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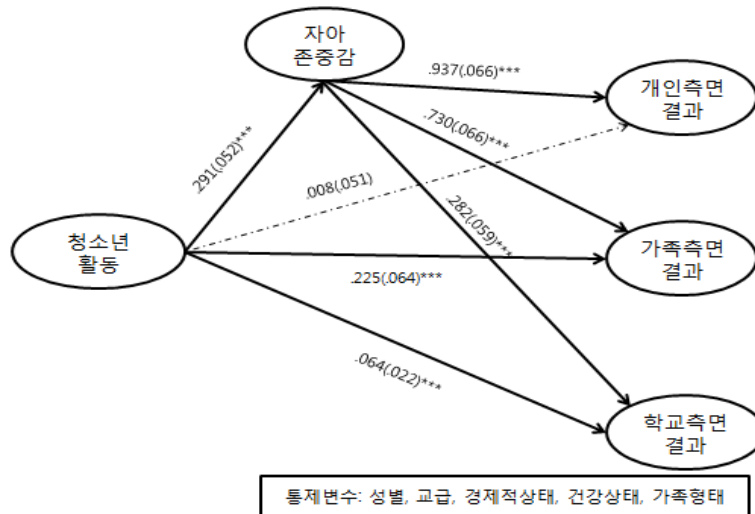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개인 측면의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측면과 학교측면의 결과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개인측면에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이 자아존중감에 .291의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개인측면의 효과성에 .937의 정적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소년활동이 개인측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측면에서 완전매개모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 측면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가족 측면의 효과성에 .730의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가족 측면의 효과성에는 .225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측면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교 측면의 효과성에 .282의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학교 측면의 효과성에는 .064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 매개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매개효과 모형

한편, 구조 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해 각 경로의 유의도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각 효과의 유의도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개인측면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효과로 확인되었으며, 0.216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측면의 매개모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0.129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측면의 매개모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0.162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청소년활동 → 개인측면 결과	.051	.216***	.267***
청소년활동 → 가족측면 결과	.064***	.129***	.193***
청소년활동 → 학교측면 결과	.022***	.162***	.184***

***p<.001

5. 결론 및 제언

최근 주5일 수업 등 교육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욕구 증가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개인, 가족, 학교라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매개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청소년 1,063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19.0과 Amo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은 개인 및 가족, 학교측면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은 개인과 가족, 학교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은 개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측면과 학교측면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 학교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직접 효과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학교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활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활동을 통해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윤나·박옥식, 2009; 문성호·문호영, 2009; Balsano et al., 2009)와도 일치된 결과이며, 청소년활동의 목적인 개인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이라는 이념과도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단계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가족측면인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조아미와 신태수(201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 기존의 청소년활동과 가족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대인관계기술 향상 및 사회성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러한 특성이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지도자,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기존연구(윤은중, 2004; 윤철, 2011; Busseri and Rose-Krasnor, 2010)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대부분인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실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 또래관계만족과 같은 학교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유진이, 2007; 권일남·김태균, 2009; 김윤나·박옥식, 2009; 이교봉, 2009; 조아미·신태수, 2012)와도 일치된 결과로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청소년활동에 대한 담론으로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과와 달리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결과로,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과목과 연계된 청소년활동 개발 및 적용을 모색하여 진로탐색 및 과학 탐구활동 등과 같은 전문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마련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학교라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발달 연령과 과업에 따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 측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정익중, 2007; 이성은, 2009; Lucas et al., 1996). 특히, 개인측면의 결과에서는 완전매개로 청소년활동 운영 시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인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어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북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 가족, 학교 측면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하위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실천적 개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있어서 여러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종류, 참여 정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은 내용과 목적 그리고 참여 정도에 따라 만족도와 효과성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종류와 참여정도 등에 따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개인, 가족, 학교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나, 다양한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횡단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특히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발달과의 상호인과적 관계를 분명하게 살펴보기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양과 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 집단을 두고 검증하는 연구설계와 더불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변수들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나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일남·김태근,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3): 67-89.
- 김선숙·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자·김순미·이현림, 2008,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14.
- 김순규·최혜정, 2011, 『2011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김아름,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이·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 김윤나, 2010, “청소년지도자의 옹호활동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3): 45-67.
- 김윤나·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창현, 2008, “청소년 수련활동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홍미애, 2004,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문성호·문호영,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101-120.
- 문성호·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박영애·최영희·박민전·김향은, 200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별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75-286.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이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정배·송병국, 2011,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22(4): 187-213.
- 설민희, 2009,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1: 140-172.
- 송광성·박성희·정문성·김경준, 1994, “청소년 수련활동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구』, 17: 114-129.
- 송인섭, 1998, “자아개념의 발달경향분석”, 『교육심리학연구』, 11: 121-156.
-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중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7.
- 유진이, 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129-144.

- 윤은중, 2004,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과분석: 활동만족도와 인식된 자기변화에 초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은중·김희수, 2006,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4(2): 57-70.
- 윤철, 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와 시민성의 관계-광명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교봉,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0: 172-210.
- 이기봉·권순용·박일혁·김양혁, 20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순, 2007,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승옥·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193-216.
- 정유경,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 214-236.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체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철상, 2002, “청소년 수련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신택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학연구』, 23(2): 161-184.
- 진은설·임영식, 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_____, 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집단의 특성 그리고 활동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3): 281-303.
- 최은영·최인령,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현월심, 2001, “살레시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자기표현·사회성향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Anderson, C. A., 1999,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loneliness: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482-499.
- Balsano, A. B., Phelps, E., Theokas, C., Lerner, J.V., and Lerner, R.M., 2009, “Patterns of early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youth development programs hav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goal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2): 249-259.
- Busseri, M. A., and Rose-Krasnor, L., 2010, “Addressing three common issues in research on youth activities: An integrative approach for operationalizing and analyzing involve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3): 583-615.

- Cheng, H., and Furnham, A., 2003,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1-21.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Hawkins, J. D., Catalano, R. F., and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Larson, R., Hansen, D. M., and Monteta, G., 2006, "Differing profiles of developmental experiences across types of organized youth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849-863.
- Lucas, R. E., Diener, E., and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Nagar, S., Sharma, S., and Chopra, G., 2008, "Self-esteem among rural girls", *Anthropologist*, 10: 151-154.
- Natvig, G. K., Albrektsen, G., and Qvarnstrom, U., 2003,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happiness among schoo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9: 166-175.
- Oberle, E., and Schonert-reichl, K.A., 2011, "Life-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 *Journal Youth Adolescence*, 40: 889-90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ndford, R. A., Armour, K.M., and Stanton, D. J., 2010, "Volunteer mentors as informal educators in a youth physical activity program", *Mentoring and Tutoring*, 18(2): 135-153.
- Schoon, I., and Bynner, D. J., 2003, "Risk and resilience in the life course :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Youth Studies*, 6(1): 21-31.
- Shields, C., Spink, K., Chad, K., and Odnokon, P., 2010, "The confidence to get go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on the self-efficacy-activity relationships among youth and adolescents", *Psychology and Health*, 25(1): 43-53.
- Wallander, J. L., Schmitt, M., and Koot, H. M., 2001, "Quality of life measure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ssues, instrumen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4): 571 - 585.
- Wentzel, K. R., and Watkins, D. E., 2002, "Peer-relationships and collaborative learning as contexts for academic enablers", *School Psychology Review*, 31(3): 366-37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청소년활동 진흥법", <http://law.go.kr>.

The Effect of Youth Activity by Asp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ife on Youths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

Kim, Soon Gy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i, Hey Je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rk, Shin A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youth activity on asp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ife on youths. Also, this study verifies the consideration of self-esteem as a mediated variable in report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1,088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Jeollabuk-do, and performed a final data analysis from 1,063 of those students. SPSS 19.0 and Amos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s the result of study, youth activities have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individual, familial, and school life for the youth involved. The results also show that youth activity experiences contribute to self-esteem completely in the youths' individual aspect, and to partially in both familial and school life as well.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in conjunction with the activation of youth activities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rom a variety of viewpoints such as individual, familial, and school life for the youths involved.

key words: youth activity,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academic achievement

[논문 접수일 : 12. 08. 23, 심사일 : 12. 08. 29, 게재 확정일 : 12. 10. 11]